

# “BTS 무대도 우리 손으로... 단순한 벽화, 예술로 만들어요”

**새로운 직업군을 찾아서**  
**벽화 아티스트**  
 고승영·한해동 뮤럴라이프

홍익대서 회화 전공, 알바서 인연  
 벽 인테리어·아이돌 뮤비 등 참여  
 “좋고 나쁜 작업없어... 맞는걸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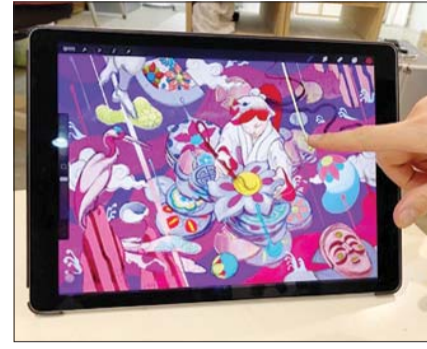
고승영 뮤럴라이프 대표 (좌), 한해동 뮤럴라이프 크루멤버 (우)

“노력할 수 있고, 노력을 오래 이어 나가는 게 재능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과 일적인 균형을 잘 맞추는 경험치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8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이대역 앞 반지하 작업실에서 고승영, 한해동 두 아티스트를 만났다. 두 사람은 거리 곳곳의 외벽이나 실내 벽 인테리어 등을 주로 작업하면서 종종 케이팝 아이돌의 뮤비에도 참여하는 등 무한한 작업 범위를 가진 아티스트 그룹을 이끈다. 이들은 ‘삶 속의 벽화’라는 뜻을 지닌 회사 ‘뮤럴라이프’에서 각각 대표(고승영·29)

와 핵심 크루(한해동·32)를 맡고 있다. -어째서 벽화인가. <고> “벽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학교의 웅벽, 다리 밑의 낡아 부스러진 페인트칠로 인해 올드하다. 벽화를 예술적으로 바꿔보고 싶었고,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못한 점도 자극이 됐다.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했다.” -최근 작업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은 뭐였는가.

<고> “최근에는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한 BTS ‘Dynamite’의 무대 세트 제작에 참여했다. 무대에서 뒤와RM이 차를 탄 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주요 소품이 있는데, 그 차를 도색했다. 원래는 검은색 차였던 것을 이틀 만에 세련된 흰색으로 탈바꿈 시켜 스태프도 어디에서 가져온 차인지 물어볼 정도였다. 도색 업체는 사흘 걸린다는 것을 저희는 2일 만에 작업하느라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 흐뭇할 때가 많다.” 두 명의 아티스트를 포함한 크루가



최근 서울 연남동에서 작업한 결과물 시안. /원은미 기자

항상 행복한 작업만 했던 것은 아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가져간 시안을 공무원 관계자나 의뢰인 측에서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때도 자주 있다. 그래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원천은 크루들이 한데 모여 내는 시너지다. -크루들끼리 갈등이 생기지는 않나. <한> “뮤럴라이프는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다. 저희는 다 미술 전공자이고, 나름의 그림을 그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역할 분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각자 능동적으로 역할 일부를 해나가는 대신에 대화를 많이 한

다. 대화를 통해 시안을 하나로 정하고 정한 시안을 지속적으로 디벨롭시킨다. 개인의 강점을 종합한 시안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것이다. 크루가 만들어지면서 각 작업에 적절한 인력을 손쉽게 모으고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하게 돼 효율적이며, 더 나은 환경에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잡고 있다.” 뮤럴라이프는 최근 한 달에 45일은 일한다고 농담할 정도로 찾는 곳이 많다. 이 그룹에 의하면 카페의 아트 월이나 상점 등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벽화가 굉장히 많은 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또래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보다는 높은 페이를 받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미술 관련 취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한> “미대를 나와도 졸업한 뒤 미술 안하는 친구들도 많다. 본인의 페이스가 있어 주변의 여러 말에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있는 분야 선배가 아니면 얇은 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자. 어떤 작업이든 무엇이 좋고 나쁨이 없고 자신에게 맞는 걸 추구하면 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유은혜 “11일 이후 등교수업 확대방안 마련”

<교육부 장관>

원격수업 장기화에 학습격차 수면위로  
 주중 시도교육청과 밀집도 방침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생활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본 뒤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석 연휴 이후 초·중·고 등교수업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이 커지면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일주일인 오는 11일까지로 지정한 특별 방역 기간 이후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격 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습격차 등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며 “전면 등교는 어려운 만큼 어떻게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 날짜를 늘릴 수 있을지 교육청과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일주일인 10월 11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동안 유·초·중·고교는 밀집도를 전체 학생의 1/3수준으로,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2

학년은 원격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 발달이 중요하다며 11일 이후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이 대학 입시 준비로 등교일수가 줄어들면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고·중·고 1학년 학생의 매일 등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에 초·1, 중·1 매일 등교를 추진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학부모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 부총리의 발언대로 실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4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조용한 전파’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초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며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2학기 매일 등교 방침을 세웠지만 광복절부터 임시 공휴일까지 3일간 이어진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 확진자는 113명으로, 이후 1일 77명, 2일 63명, 3일 75에 이어 4일 확진자는 64명이다.

교육부는 11일 이후 등교 수업 여부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내 밀집도 방침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lhj@

##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

허위 출근부 작성 4161건 최대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이 6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근

로장학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근로로 적발된 건수는 6138건, 환수대상 금액은 총 2억 4879만 2404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

위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한 대리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한 시간이 상이한 대체근로로 나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근로의 종류별 통계로는 ▲허위근로 4161건 ▲대체근로 1829건 ▲대리근로 148건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가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진 기자

## 국립대학 83% 코로나 특별 장학금 지급

1인당 평균 18만3511원 지급

국내 36개 국립대학 중 30개 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1인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은 평균 18만3511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4일 전국 국립대 36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30개의 대학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292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수혜 학생 수는 15만 9327명이다. 학생 1인당 평균 18만3511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셈이다.

특별장학금은 1학기 성적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낸 등록금 실

납입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20만 원 등 상한을 정한 학교도 있었다. 1인당 10만원 정액으로 지급하는 학교도 있다.

장학금 지급 형태는 학생 개인 계좌 지급 또는 2학기 등록금 전액 면 방식이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 상황에 등록금을 반환 감면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이 처리된 만큼 대학은 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피해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라면서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학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 군산대

#### 여대생 특화 취업멘토링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여대생 SOS’ 온라인 취업멘토링을 11월말까지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열리고 있는 ‘여대생 SOS 온라인 취업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대생 특화 온라인, 오프라인 취업지원서비스이다. 진로 및 취업교육을 월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생통합지원시스템 비교과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 학생 취업역량 강화 추진

세종대대학일자리사업단은 6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기획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고, 신청자에 한해 온라인 링크를 공유한다.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공기업 자기소개서, 면접, 기업/산업분석과 ‘트렌드 코리아 2020’이 선정된 10대 키워드 중 하나와 결합해 ‘취업을 위한 업글인간’이 되는 법 등이다.

희망자는 학생경력개발시스템인 유드림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